

어리석은 권사적기본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합동참모본부제정안》을 립법하여 그 무슨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라는것을 신설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정식 임무수행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떠들고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형3축라격체계》의 지휘와 운용구조 등의 불합리성을 피치하여 《북진제타격》을 골자로 하는 북진전쟁준비를 다그치려는 어리석은 군사적기본에 따른 또 하나의 가스로운 대결망동이다.

공화국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3축라격체계》는 오래전부터 실시간감시와 정찰, 식별과 분석, 추적과 요격, 타격의 정밀성, 다량발사된 미사일들에 대한 처리능력 등에서 허점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남조선군내부에서까지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혹평을 받고있다.

최근에 진행된 북진전쟁연습들에서 드러난것처럼 이 체계의 핵심이라는 미사일들이 불발되거나 락탄되었고 미사일조기경보체계 역시 다발적, 다각적인 미사일들을 탐지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내외의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었다.

발육같은 미숙아, 눈논 청명과 나와 같은 기능상실의 체계와 고철덩이같은 무기들, 제각기 놀아대는 오합지졸 군부장관들의 취약성과 허점을 그 무슨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 같은것이나 내온다고 없앨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오산이고 이러한 부실하기 그지없는 체계와 무기를 가지고 최강의 핵보유국과 맞서보겠다는 것 또한 망상중의 망상, 만용중

의 만용이다.

역적패당이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신설하려 하는것은 역도의 집권《공약》인 전략사령부창설을 무난히 추진해보려는 기도와도 관련된다.

남조선내부에서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결제를 만회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신설하려고 하지만 결단코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결제를 숙명적인것으로 감수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 언젠은 이러한 비대칭관계를 절대로 허물수 없다. 미국상전도 진통하는 절대적합을 비축한 공화국을 상대로 군사적행동을 기도하는것은 가당치 않은것이며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멸행위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군사적으로

공화국과 맞설 공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거하여 선제적으로 공화국의 전쟁역적력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스려 한다면 그러한 무모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중지박산날것이다.

남조선내부에서 《한국형3축라격체계》로도, 전략사령부의 전신이 될수 있는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로도 《북의 핵 및 미사일공격을 탐지, 요격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급격히 발전하고있는 북의 미사일능력에 남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응당하다.

상대를 오관하고 무모하게 설친다면 그것으로 언을것은 가련하고 비참한 종말뿐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인권유린자들의 추악한 망동

화는 입으로 나온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가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다.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라는 뜻일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역도의 입이라는것은 자기에게 타격 될 온갖 화를 스스로 쏟아놓는 《관도라상자》 같은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얼마전 동아시아지역을 행각한 역도가 공화국의 자주권리행사와 자위적조치들에 대해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떠들며 미일상전에게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 대북화장역적체제구축》과 《공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저들의 대결정책에 대한 《국제적지지》를 구걸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윤석열역도가 《도발》이

니, 《위협》이니 하며 걸고든 공화국의 군사적조치들로 말하면 의외와 야합하여 시시각각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는 역적패당의 북진전쟁책동에 대응한 지극히 정정당당한 자주권행사이고 자위적조치라는것은 내외가 인정하는것이다.

그리고 역적패당이 《년례적》, 《방어적》으로 묘사한 전쟁연습들이 《선제공격》, 《참수작전》 등 훈련의 내용들이 보여주듯 북침을 노린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라는것도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역도의 반공화국대결, 사대매국정책때문에 《안보》불안이 고조되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이 격화되고있다고 하면서 《윤석열은 퇴진하

라》, 《퇴진이 곧 평화》라고 성토하고있는것이다.

역도와 그 패당이 떠드는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이라는 꾀변은 공화국의 주권과 체제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정치적도발이고 도전이며 버릴수 없는 대결광, 호전광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꾀변에 불과하다.

집구석에서는 허세를 부리며 위험천만한 전쟁소동에 열을 올리고 집밖에서 나가면 입부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망발을 서슴지 않는 윤석열역도이다.

이번에 윤석열역도가 해외연단에서 그 무슨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제적지지》를 얻어보고 싶은 구걸질을 한것도 그에 대한 하나의 실증이다.

이미전에 남조선 각계층과 미국의 패권전략과 북침

핵전쟁책동의 머슴꾼인 호전광, 반공화국제압박공조에 매달리는 대결광, 영망인 집안골은 아랑곳없이 해외를 돌아다니며 해괴한 추태만을 일삼는 정치시정배로서의 윤석열역도의 본색을 다시금 드러내듯이 바로 역도의 이번 동아시아행각이었다.

다시말하여 대결과 사대에 찢든 역도의 추악성을 날날이 드러낸 대결행각, 매국행각이며 수처와 굴종을 발뺌하는 정치무능의 망성행각일것이다.

그것저나 입만 벌리면 대결악담이고 사대망발만 늘어놓는 윤석열역도의 구르고구린 입이 참 문제이다.

그리고 그 더러운 입을 통제하지 못하는 역도의 지능지수 또한 문제중의 문제라 하지 않을수 없다.

윤석열역도는 악취풍기는 입부리를 함부로 놀리다가는 더 큰 봉분을 당하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리기영



최근 남조선내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정책때문에 북남사이에서 무력충돌이나 《주부전쟁》까지 일어날수 있다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역적패당이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연한 주장이 아니라,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최악의 정세는 전적으로 미국과 함께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미처날려는 윤석열역적패당에게 책임이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역적패당은 권력의 지리에 올라왔기 바쁘게 공화국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미국상전

과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의 재개 및 확대,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 《확장적전략협약》의 재가동에 합의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무모한 전쟁대결책동에 매달려왔다.

최근에만도 미국과 대규모 연합공중전쟁연습인 《비블런드 스톰》을 벌린데 이어 《2022 태극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며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지역을 돌아치며 미국, 일본것들과 반공화국군사적결탁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망동을 부

리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 마련이다.

결국 공화국을 해치기 위한 윤석열역적패당의 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는 정쟁》을 걸어치워야 한다고 하면서 반전평화, 반윤석열투쟁에 총력하고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제 처지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분별없이 날치다가는 비참한 대가를 치르기마련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남조선내부에서 일어나오는 《대북강경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심중히 듣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부연하건대 미국도 두려워하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공화국과 힘으로 맞서보겠다는것이야말로 제스스로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리종국

오늘도 타오르는 불길

살았다면 이제는 중순도 보았으련만 52년전, 꿈같은 그 나이에 스스로 제몸에 불달아 약정에 합거한 남조선의 전태일

그 웨침은 남조선노동자들 전체의 웨침이었고 그 웨침은 《유신》독재멸망 부른 퇴성이었거니 오, 청계천기술에서 타올라 남조선 각계층의 마음들에 지져진 그 불길

지금도 쟁쟁하여

활활 타는 불속에서 터져나오던 남조선노동자들의 분노의 웨침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있다

오늘도 마초처럼 내몰리우는 남조선의 수백만 전태일들이 철탑우에서, 거리와 광장들에서 웨친다 -이대로는 살수 없다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서자

남조선땅을 휩쓸던 료원의 그 불길 세월이 흘러 반세기가 넘어도 정녕 꺼질줄 모르는 그 불길

아, 《유신》독재 통가하는 윤석열역적패당 그 교활하고 극악한 반역세력 그냥 두면 노동자들의 미래가 없네 전태일의 몸과 정신이 실릴될 그날까지 투쟁의 불길은 더 거세차게 타오르리라



불행과 재앙만을 몰아오는 《참사정권》

《(국정)철학과 미래의 전망은 없고 (참사정권)이라는 오명만 각인시켰다.》,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은 인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5대참사)로 귀결됐다.》, 《이제 겨우 임기의 10분의 1이 지났을뿐인데 국민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있다.》... 이것은 윤석열역도의 집권 6개월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평가와 분석이다.

우연한것이 아니다. 역도의 집권기간 민생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다던 역도는 심복들과 친인척들로 몽그려놓은 《동아리정부》를 만들어놓고 저들의 안일과 부패를 위한 파초독제를 구축하는 데만 골몰하였다.

《국민생명의 안전과 보호가 제1책부》라고 입버릇처럼 외위대던 윤석열《정

권》은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가 꼬리를 물고 들어닥다. 가계부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민생이 아수성처도 아무런 맥도 추지 못하고 위기에 위기만 덧쌓고있다.

민생은 이 풀인데도 역적패당은 추악한 대결정치로 남조선사회에 분열과 혼란만을 야기시켜왔다.

야당파의 《소통》, 《협치》는 불통, 독재통치, 정치보복으로 되었고 민생을 혼란하는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더욱 악명을 떨치고있다.

역적패당은 저들의 비유에 거슬리는 언론들에 대한 탄압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최근 언론 《MBC》에 대한 탄압광풍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새는것처럼 해외교참사만 엮어놓은 윤석열 총체적으로 윤석열역도는 남조선에 경제위기, 재난위기, 민생위기, 외교참사, 전쟁위기 등 온갖 위기와 재앙만 몰아오는 화근이다.

윤석열역도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나쁜짓만 골라하는 불망중, 망나니로 락인찍힌 인간추물이다.

머리에 든것은 없고 지속하고 덜덜떨은 이런자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았으니 남조선이 온통 엉망이 되고 앞날이 캄캄해질수밖에 없는것이다.

-독초는 뿌리채 뽑아던져야 한다.-

위기관 몰아오는 화근- 윤석열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한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은 더욱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얼마전 윤석열역적패당이 해외행각을 떠나면서 《MBC》취재진의 《대통령》전용기탑승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당 언론사의 외극, 편파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구구히 변명해나섰다.

하지만 역적패당의 조치는 일종의 정치보복, 언론탄압이라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평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세력들은 윤석열역도가 군사독재시기의 언론관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보도자유》에 대한 침해,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볼수 있는 행위, 치졸하고 비렬한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해나섰다.

언론노동조합, 기자회견을 비롯한 8개 언론단체들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역적패당이 저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대한 개인복수에 매어달라고 보도되면서 국제적인 물의를 일

치졸하고 비렬한 언론 탄압

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 경우 전면대결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긴급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비난과 항의의 목소리는 해외에서까지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 각계가 주장하는것처럼 《MBC》에 대한 윤석열역적패당의 부당한 조치야말로 비렬한 언론장악, 언론탄압행위이며 남조선사회를 더욱 황량한 민주주의페허지대로 만들려는 파초적폭거인 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9월 미국행기간 윤석열역도가 내뱉은 망발은 남조선언론들과 외신들에 보도되면서 국제적인 물의를 일

론사들은 윤석열역도의 무지, 무능, 강권과 전횡, 온갖 요설과 음모적방법에 의한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제재하고있다.

그 기사들이 남조선내에서 반윤석열기운을 고조시키고있다며 여기고있는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은 저들에게 엮어나가는 언론들에 대한 탄압도 열을 올리고있다.

언론에 자갈을 몰리고 강권과 강압으로 언론을 권력의 시너로, 독재《정권》유지를 위한 어용나팔수, 매진로 만들자것이 역적패당의 흥심일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이 부당한 압력과 비렬한 방법으로 언론을 장악하여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우려고 해도 진실은 결코 감출수 없다.

역적패당의 강권과 전횡, 파초 탄압은 남조선 각계층의 민《정》부, 반윤석열투쟁을 더욱 고조시키고 반역《정권》의 파멸을 보다 더 앞당길뿐이다.

본사기자 황금숙